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교회와 최후의 것들, 세션 13, 불멸, 신과 인간, 그리스도의 재림, 그 방식, 개인적, 가시적, 영광스러운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교회 교리와 최후의 것들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13, 불멸, 신과 인간, 그리스도의 재림, 그 방식, 개인적, 가시적,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후의 것들 교리 또는 종말론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와 구세주 예수의 재림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갖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그는 살아 계시고 그와 다른 성경 저자들이 그의 재림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되고 기쁜 소망을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론, 교회 교리에서 최후의 것들에 대한 교리로 옮겨가서 그 중 세 가지 서론적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두 시대는 현재 시대와 다가올 시대를 대조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 다양한 측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강력한 구약 배경 위에, 예수님은 그의 공적 사역에서 신약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오순절에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면서 크게 확장되었지만, 그의 재림, 그의 재림에서 그 충만함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서론적 측면이 가장 중요한데, 즉 이미와 아직이 아닙니다. 신약의 거의 모든 페이지가 이 공기, 이 분위기를 호흡합니다. 구약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사역과 성령의 파견으로 성취됩니다.

이미입니다. 이미 예언은 성취되었지만 아직은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신약은 성취를 증언 하지만 마지막 날에 충만하게 성취될 일들을 지적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죽음과 중간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따르면 죽음은 자연스럽지 않고 비자연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을 구별했는데, 이는 둘 다 이미 영적 죽음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죄로 죽는다면, 그들은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또는 지옥에 대한 성경적 용어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아직 아니다. 첫 번째 죽음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죽을 때 발생한다. 중간 상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주된 소망은 육신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하지만 주된 소망은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육신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중간 상태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현재 상태를 구분합니다. 성경은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현재 상태, 육신의 삶, 중간 또는 중간 상태, 즉 죽음 이후, 부활 전, 그리고 영원한 상태, 즉 최종 상태, 즉 육신의 부활에 따른 상태를 구분합니다.

성경은 믿는 이들을 위해 그것에 대해 꽤 많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중간 천국입니다. 빌립보서 1장은 그것이 빌립보서 1:23보다 더

낮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살아 있고 주님을 아는 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상태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 밖에 있습니다. 하느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든 방식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우리는 지금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방식이 아닙니다. 목사들은 중간 상태에서 영원한 상태로 추론하고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할 때 오류를 범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부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을 다시 합치시고,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천국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아는 것보다 두 가지 면에서 더 낮습니다.

첫째,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히브리서 12:23은... 무엇에 대해 말하는 것일까요? 영적 시온 산 천국, 온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 ESV, 온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이 온전하게.

하지만 중간 상태가 현재 상태보다 더 나은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임재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바울은 그것이 훨씬 더 낮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23. 오늘, 당신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믿는 도적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낙원의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 고린도전서 5장, 모든 중간 상태의 가장 좋은 구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몸 안에 있고 주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육신에서 떠나 주님과 함께 집에 있기를 갈망합니다. 신약에서 구별되지 않은 주님은 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에 있습니다.

중간 상태가 더 나은 이유는 죄가 사라졌기 때문이지만, 주로 우리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현존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더 나은 것은 비교를 통해 좋고 가장 좋은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 몸 안에서 주님을 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23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활하고, 전체론적이며, 완전히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등등, 주님과 함께 새 땅에서 정당화된 존재입니다.

불신자들이 중간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더 어렵지만,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모두를 위한 중간 상태에 대해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 나사로, 그의 이름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이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이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그는 그를 돌보고 죽음에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갑니다. 그의 옆구리, 중간 천국, 낙원, 사후의 행복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우리는 사악한 부자가 사악한 것을 압니다.

그는 사악한 형제들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하기 위해 누군가를 돌려보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악한 부자는 죽어서 하데스로 갔는데, 여기서는 중간 지옥을 말합니다. 보통 하데스는 구약의 세울 과 비슷하게 무덤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중간 지옥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길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불의 이미지는 지옥에서 길을 잃은 자의 고통을 보여주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중간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틈이 있습니다.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는 그것이 탈출구가 없는 끔찍한 고통과 아픔의 장소임을 봅니다. 이 우화의 주요 요점은 종말 스트레스의 법칙입니다. 마지막 요점은 다가오는 진노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하기에 성경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을 믿지 않는다면, 아브라함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믿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죽음에서 부활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물론, 누가 이 말을 쓸 때, 그것은 아이러니한데, 왜냐하면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9도 불신자들을 위한 중간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불멸로 넘어갑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기독교 교회의 사고방식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도 너무 큰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말해야 합니다. 오직 신만이 본질적으로 불멸입니다. 소멸론과 반대로, 그는 모든 인간에게 불멸을 부여했습니다.

셋째,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혼의 불멸보다 인간의 불멸에 대해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불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사도가 그의 사도적 대표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전서 6:13,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여 선한 고백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 계명을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꾸지람할 것이 없는 채 지키라고 도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분은 적절한 때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그분만이 불멸을 가지고 계시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거하시며, 아무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통치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느님만이 불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의미는 그 혼자만이 본질적으로 불멸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 다음 요점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불멸인 신이 인간에게, 사실 모든 인간에게 불멸을 부여했다고 확언해 왔고, 저도 확언합니다.

나는 계속 그 글을 본다. 그것은 아들에게 내재적인 불멸을 부여하는 듯하다. 아마도 그것은 아버지일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내가 신 앞에서 당신에게 명령한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지옥에 대한 견해를 다루겠습니다.

그 견해 중 하나는 소멸주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복음적 소멸주의는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예수는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는 죽은 자를 일으키고, 잃어버린 자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소멸주의는 보편주의에서처럼 지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대한 견해입니다.

하지만 그는 악한 자들을 그들의 정당한 보상에 따라 처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에 대한 벌을 치렀을 때, 마지막 타격은 하나님에 의한 그들의 존재의 소멸입니다. 그들은 멸절됩니다.

그들은 파괴되었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역사적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멸론에 대한 다섯 가지 주요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네 가지를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지금 당장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소멸론에 대한 다섯 가지 주장 중 하나는 불의 이미지와 함께 불이 소멸한다고 말합니다. 즉, 사악한 자들은 소멸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파괴의 어휘, 존 스토틀, 경건한 사람. 그리고 그는 매우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50년 동안 비밀리에 그의 마음속에 간직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유주의 성공회 신자와의 토론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그들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의 의미이고, 그것은 질문을 구걸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학자에게는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들이 멸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그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멸망하는 계시록을 인용합니다. 나중에 계시록을 추적해 볼 텐데, 그 발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그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20장에서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그 자체의 용어를 정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쨌든, 소멸론에 대한 다섯 가지 주장은 단지 미리보기일 뿐입니다. 파괴라는 어휘는 존재의 멸종을 의미합니다.

지옥불 이미지는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소모를 의미합니다. 신의 정의입니다. 시간 속에서 지은 죄에 대해 신이 영원히 사람들을 벌하는 것은 불의할 것입니다.

보편주의 구절. 복음주의적 소멸주의자들은 보편주의를 가르치지 않지만, 악인들이 마침내 멸망되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보편주의와 더 잘 어울린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들이 왕국을 아버지께 넘기는 구절과 같은 구절에 맞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 일어납니다.

그의 존재가 그의 창조물의 일부가 끝없이 고통받는 것과 완전히 부합하는가? 다섯 번째 주장은 조건부 불멸에 근거한다. 소멸론에 대한 또 다른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나는 1995년에 쓴 책인 *Hell on Trial, The Case for Eternal Punishment*를 읽고 있다.

저는 그것을 일종의 기본적인 성경 대학 교재로 여깁니다. 저는 실제로 이 분야에서 세 권의 주요 책을 썼습니다. 좋은 나쁜데요. 나중에 천국에 대한 책 두 권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또 다른 하나는 에드워드 퍼지와와의 대학 간 토론이었습니다. 그는 소멸주의를 주장했고, 나는 전통적인 관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 가장 큰 학술적 것은 *Hell Under Fire for Zondervan*으로, 제 범죄 파트너인 캘리포니아 침례교 대학 교수이자 기독교 사역 대학 학장인 크리스토퍼 모건과 저는 훌륭한 팀인 앨 모홀러, JJ 패커, 더그 무를 모았고, 그저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밥 야브로는 학문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정말 훌륭한 팀이었고, 다행히도 모건과 제가 한 일의 특징이었습니다. 조건적 불멸, 줄여서

조건주의는 기술적으로는 다르지만, 문헌에서도 소멸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기술적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소멸주의는 사악한 자들이 박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찾던 단어였고, 제 뇌가 마침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고, 그런 다음 멸종될 것입니다. 조건부 불멸 또는 조건주의는 인간의 영혼이 본래 불멸이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그들은 필멸자입니다.

그러나 그 불멸은 오직 거듭남에 있어서 의로운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그 결과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불멸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불멸의 선물이 없기 때문에 멸망되고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클라크 피녹은 이 문제를 중대한 것으로 여긴다. 클라크 피녹은 이제 주님과 함께 복음주의자이며,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P&R 출판사에서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책을 썼다.

그래도 훌륭합니다. 그는 그것에서 물러났지만요. 그는 영원한 형벌을 고수했지만, 그가 떠나려가면서 복음을 듣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포용주의라고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사후에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고, 믿지 않는다면 멸망하게 됩니다. 그는 다른 여러 면에서도 마음을 바꾸었는데, 5점 이상의 칼빈주의자에서 5점 이상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로, 그리고 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건한 사람이고, 여전히 형제입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언어로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제가 말했듯 이, 저는 상대방에게 공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가 공평한지 판단하는 것은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인용문: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토론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널리 믿고 있는 영혼의 자연적 불멸에 대한 믿음은 성경보다는 플라톤에서 더 많이 유래되었지만, 실제로는 전통적인 지옥 교리를 주석보다 더 많이 이끌기 때문입니다.

나는 혀를 깨물었다. 논리를 생각해 보자. 영혼이 본래 불멸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불뭇은 영원히 그들의 집이어야 하며 그들의 멸망이 될 수 없다. 나는 영혼의 불멸에 대한 헬레니즘적 믿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 특히 성경보다 악인에 대한 영원한 의식적 처벌 교리에 신빙성을 부여했다고 확신한다.

인용문 닫기. 클라크 피녹은 *The Destruction of the Finely Impenitent* 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쓴 기사입니다.

저는 그것이 크리스웰 신학 저널에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믿으시든 말든, 저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 주장, 제 답변은, 글썄요,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신만이 불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본래 불멸이 아닙니다.

신은 불멸의 선물을 주십니다. 제게는 모든 영혼에게 주는 선물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경에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 마태복음 25:46이 영원한 운명에 대한 교리를 주도하는 것이지 헬레니즘 철학이 아닙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혼의 불멸을 믿었고 육신의 부활을 거부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테네의 마르스 언덕에서 바울에게 한 반응은 그가 예수의 죽음에서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끝낼 때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철학자들은 미칠 지경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정신을 잃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듣고 싶어서 그를 다시 듣고 싶어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렇게 끝나고, 염소들, 잃어버린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가고,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 문제를 다루겠지만, 400년경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옳았습니다. 같은 형용사 *aionios* 에 대해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맥락에 의해 정의된 나이와 함께 나이를 의미합니다. 다가올 시대의 맥락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같은 형용사 *aionios* 가 잃어버린 자와 구원받은 자의 운명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생명. 다른 의미인가요? 아니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간의 불멸을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가르칩니다. 신은 홀로 불멸이십니다.

Piddick 에게 한 제 답변을 잠시 후에 읽어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말해서, 영혼의 불멸은 성경적 표현이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5:53, 54는 우리의 현재 몸과 부활한 몸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필멸자는 불멸을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썩을 수 있는, 썩지 않는. 약하고 강력한. 부끄러운, 매장할 때의, 적절한 단어가 아니지만, 영광스러운 것이 적절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이고 영적인 것들. 우리는 몸의 부활에 도달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기술적으로 불멸이라고 불리는 것은 인간의 부활된 몸, 온전한 인간의 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첫째, 오직 신만이 본질적으로 불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은 영원한 형벌이나 영원한 삶을 겪기 때문에 신이 인간에게 불멸을 부여했다는 것은 논리적 추론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형용사와 명사, 불멸과 불멸을 사용하는 방식 때문에 영혼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인간, 즉 온전한 인격의 불멸에 대해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피독에 대한 답변. 영혼의 불멸에 근거한 소멸주의 또는 조건주의에 대한 이 주장은 네 가지 이유로 엄청나게 과대평가되었습니다. 첫째, 철학은

우리 시대를 포함한 교회 역사의 모든 시기에 영향을 미쳤고, 클라크 피녹은 다양한 철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저는 그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옥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주장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글을 들어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훌륭한 사람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윌리엄 GT 세드, 밀러드 에릭슨, DA 카슨, 더글러스 무, 짐 패커, 정통주의의 충실한 몇몇을 꼽아보겠습니다. 그들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통을 고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스꽝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때때로 자신의 자연스러운 성향에 반하는,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충실함에서 이 끔찍한 교리를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 싶다면, 당신에게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둘째, 그들의 불멸에 대한 관점은 플라토닉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었다.

그들은 플라톤처럼 인간의 영혼이 본질적으로 불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만이 불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디모데전서 6:16에서 그들은 불멸의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불멸을 허락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셋째, 우리는 영혼의 불멸이라는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그 표현을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불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죽음 이후 인간 본성의 비물질적 부분이 살아남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적 개념이지만, 중간 상태에서 인간의 영혼이나 영이 살아남는다고 부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전자를 영혼의 불멸이라는 표현으로 언급한다면, 우리는 중간 상태와 최종 상태를 혼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불멸의 영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최후의 운명을 설명하기 위해 영혼의 불멸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의 최후의 상태는 하늘에서의 무육체적 영적 삶이 아니라 새 땅에서의 전체적인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영혼의 불멸이 아니라 사람의 불멸에 대해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의 언어와 일치합니다. 부활한 의로운 자들에 대해 인용하자면, 썩을 수 있는 자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수 있는 자는 불멸을 입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53.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인간의 불멸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옥 관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나는 인간의 불멸을 믿는다. 왜냐하면 성경이 악한 자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있고 의로운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그 방식, 시기, 그리고 그 기능.

세 가지 하위 요점. 그 방식. 이건 정말 재림의 ABC와 비슷하지만, 알아요? 저는 우리가 성경의 ABC로 시작해서 그걸 기반으로 쌓아올린다고 생각합니다.

재림은 개인적이고, 눈에 보이고, 영광스럽고, 여기서는 긍정과 부정을 모두 사용하여 가르치겠습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본적인 용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장 단순한 용어로, 물론 성경을 사용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마지막 일의 모든 주요 측면이 이미 있고 아직은 아니라는 느낌이 있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오는 것을 이미 나타난 예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때, 그게 사실이고 충분히 타당하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은 개인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굴욕을 당하지 않고 영광을 얻으셔서 다시 오십니다. 오순절에 오심은 이 두 번째 오심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1 .

사도들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는 것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천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는 여러 번 그 제자들 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유대 어딘가의 동굴에 숨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사도행전 1장의 승천은 제자들과 사도들을 위한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도둑에게, 그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에서, 아버지,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임재 안에 계셨다가 나가셨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 승천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승천은 공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예수님의 9가지 구원 사역 중 하나입니다.

그의 성육신과 죄 없는 삶은 그의 구원 사역, 그의 죽음과 부활의 핵심과 영혼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며, 그의 죽음과 부활, 그의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오순절의 영을 부어주심, 교회를 위해 중보하심, 그리고 그의 재림은 그의 구원 사건의 마지막 표현에서 비롯된 다섯 가지 구원 사건이 뒤따릅니다. 아무것도 십자가에서 빈 무덤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두 가지 선구자, 다섯 가지 결과입니다. 성육신, 죄 없는 삶, 죽음과 부활, 승천, 세션, 승천, 세션, 오순절, 저는 빼먹었습니다.

영을 부어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큼이나 그의 구원 사역입니다. 십자가와 빈 무덤은 더 기본적입니다. 영을 부어주고, 중재하고, 다시 오심은 다섯 가지 필수적인 분기이며, 그 중 하나가 승천입니다.

승천은 땅의 낮고 제한된 영역에서 하늘의 초월적인 영역으로의 그의 공개적인 이전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도행전 5:31,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와 용서의 은사를 주시고, 그의 영으로 그의 사도들을 통해 그의 말씀을 주시고 그의 행동을 계속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려다보고 있고, 천사는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어 올리신 예수께서는 너희가 본 것과 같은 모양으로 오실 것이다. 아마도 구름 위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요점은 아닙니다.

요점은 그가 직접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부정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이미 돌아온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최후의 재림이 아닙니다. 첫째, 그 방식은 눈에 보이고, 개인적입니다. 미안합니다, 개인적입니다. 둘째, 그것은 이것으로 흘러들어가고, 눈에 보입니다. 특히 19세기에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신이 와서 신자들이 죽으면 데려간다는 것이 부분적인 진실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사실, 전체 관행, 전체 신학, 그리고 관행은 임종 개종 등과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그런 것이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전체가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요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어쨌든, 신자들은 죽음에 주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재림이 아닙니다.

이건 부정이에요. 두 번째 오심은 개인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특히 그를 반대하던 자들이 볼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5:31은, 왜 그렇게 많은 종말론적 구절들이 오해받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문맥에 맞춰 구절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종말론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결국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천년왕국을 포함하여 일부 세부 사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가지라고 촉구할 것입니다. 제 학생들은 제가 제 견해가 무엇인지 말할 때까지 계속 저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내 큰 일이 아니지만, 나는 네 가지 진실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그 중 첫 번째입니다. 재림, 죽은 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영원한 운명. 나는 그 진실들을 확신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실을 전파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세부 사항이 아닌 그들 주변의 마지막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구축합니다. 그것들은 나에게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싸우거나 분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알아야 하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의 재림은 진실입니다. 그것은 그 네 가지 기본 진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20세기부터 21세기까지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 부활, 최후의 심판, 영원한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새 땅과 지옥을 고수했습니다.

마태복음 24:27. 제가 잘못된 구절을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옮겨진 곳이 바로 25장과 20장 사이입니다. 23절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보세요, 먼저 제가 맥락에서 벗어나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까라고 말한다면,

27. 번개가 동쪽에서 나와 서쪽까지 비추는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그의 임함이 빠르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글쎄요, 어쩌면 그의 재림은 빠를지도 모르고, 어쩌면 다른 곳에서, 심지어 여기에서도 그것을 가르쳐 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그의 재림의 타이밍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재림의 가시성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맥락을 살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3절.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와 어린 달이 그리스도라 하거든 아니요.

소위 여호와의 증인의 워치타워 협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아니요. 나가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들이 말한다면, 보세요, 그는 방에 있어요. 믿지 마세요.

번개가 동쪽에서 나와 서쪽까지 비추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오, 맏소사, 나는 잠들었고, 1초를 놓쳤다.

아니요, 놓치지 않을 겁니다. 거대한 공개 행사가 될 겁니다. 제가 비밀 휴거 교리를 모순하는 것처럼 들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재림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이렇게만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심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들을 데려가기 위해 죽음에 하나님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이 정확히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 오심은 개인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며, 첫 번째 오심과 대조적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굴욕 속에서 오셨습니다. 그는 마구간에서 태어나 소의 여물통에 누워졌습니다.

새는 둥지가 있고 여우는 굴이 있다. 나는 그것을 뒤집었을 수도 있지만, 인간의 아들은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적어도 어떤 때는 그가 노숙자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영광의 주님이 영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백성에게 영접받아야 합니다.

오, 세상에. 가장 큰 굴욕은 언약 백성에 의한 그의 처형과 그 다음 그의 매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매장했습니다.

이건 병든 세상이에요. 정말 잘못된 게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첫 번째 오심은 굴욕 속에 있었지만, 오, 그때는 그의 영광의 불꽃도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변형을 믿어요.

저는 요한 복음의 표적들이 그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종교 개혁 이후의 루터교도와 개혁신교도가 두 가지 상태, 즉 굴욕의 상태와 승영의 상태를 구별한 것은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굴욕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난 영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읽었습니다. 우리는 아마 몇 번 더 읽을 겁니다. 양과 염소로 돌아가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그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것이 그의 수행원이다. 이것이 그의 행렬이다.

여기 그의 수행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의 수행원들과 함께 오는 왕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의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을 것입니다. 땅의 나라들이 그의 앞에 모일 것이고, 그는 그들을 심판할 것이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미리입니다.

그건 그들이 살아온 동안 그에 대한 반응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들의 운명을 정하는 거예요. 저는 전에 웨슬리에 대해 뭔가 말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다시 그 주제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마지막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존 웨슬리는 영국 제도에서 수천 시간을 말을 타고 복음을 전파했고,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한 형제인 친구가 있는데, 그는 자신을 웨슬리안이라고 부르고 칼빈을 사랑합니다. 저는 웨슬리를 사랑하는 칼빈주의자입니다. 웨슬리는 칼빈주의를 정말 싫어했기 때문에 그가 칼빈을 사랑하는 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작가가 아닐까요. 세상에.

노예상인 존과 함께. 존, 도와줘. 모든 찬송가를 쓴 전 노예상인 존과 존 뉴턴.

고맙습니다. 존 뉴턴이 그 신사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더 현대적인 아티스트들. 하지만 우리는 웨슬리의 찬송가를 큰 기쁨으로 마음속에 부릅니다. 웨슬리는 정말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신학과 결별하고, 그들은 내 신학을 체계적 오류로 간주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똑같이 할 것이지만, 나는 확실히 그들을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들 안에서 기뻐합니다. 어쨌든, 존 웨슬리는 말을 타고 있는 모든 시간 동안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는 온갖 글을 썼습니다.

그는 신약 전체와 구약 전체에 대한 주석을 달고, 원죄에 대한 논문을 썼으며, 마음속으로 몇 가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모든 죽은 자의 부활.

웨슬리가 그 당시에 세상에 알고 있던 사람의 수만 봐도 알 수 있죠. 지금은 상상할 수 있나요? 70억 명이나 뭐 그런가요? 최후의 심판. 사람들에게 운명을 정하는 것.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려면 10만 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웃습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저는 웃습니다.

요점은 알겠어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모든 세부 사항을 모른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구약성서의 숫자가 문제라고 하더라도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죠?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 주님은 그가 하실 일을 하실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전부 이해하지 못합니다. 10만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의 선한 사람이 계산을 했고, 그것이 그가 내놓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자체로 ABC이지만, 우리는 ABC를 우리의 기초로 필요로 합니다. 개인적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신자들이 죽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초림할 때의 그의 재림이 아닙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관한 더 자세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교회 교리와 최후의 것들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3, 불멸, 신과 인간, 그리스도의 재림, 그 방식, 개인적, 가시적, 영광스러운 것입니다.